대승의 취지 달리 말하면 '中道'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㉟ 대승법

〈원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승만이여, 이 깊은 법을 방편으로 잘 지키어 보호하고 그릇된 법을 항복함은 매우 잘한 일이니라. 너는 지난 세상에 백천억 부처님을 모셨으므로 이러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훌륭한 광명을 놓아 대중을 두루 비추시면서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7다라수(多羅樹) 높이까지 올라가셔서 공중으로 걸어서 사위국(舍衛國)으로 돌아가셨다. 승만 부인과 모든 권속들은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시름없이 바라보면서 잠깐도 한눈을 팔지 아니 하다가 부처님께서 가시는 형상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여래의 공덕을 제각기 찬탄하고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승만 부인은 성(城)안으로 돌아와서 우칭왕(友稱王)에게 대승법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일곱 살 이상 된 여자에게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하였다. 우칭왕도 일곱 살 이상 된 남자에게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하였으므로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대승으로 향하였다.

〈강설〉 승만 부인이 부처님이 증명하시는 가운데 법을 다 설하고 부처님의 칭찬을 받는다. 지난 세상에 백천억 부처님을 섬겼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는 부처님은 공중으로 몸을 솟구쳐 사위국으로 돌아가시고 승만 부인은 성중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이 공중으로 몸을 솟구쳤다는 것은 신통을 보인 모습이다. 흔히 말하는 육신통(六神通) 가운데 신족통(神足通)을 보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고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불법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야기로 보면 된다. 다라수(多羅樹)는 종려과에 속하는 야자수로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다. 15m 정도 되는 키를 가져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부처님이 찬탄한 대승법을 승만 부인이 우칭왕에게 전하고 왕과 부인이 7세 이상의 남녀를 각각 나누어 교화하였다는 내용이 특이하다. 하필 7세를 든 것은 예(禮)를 아는 기준 나이를 말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유교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성별의 윤리를 강조한 것처럼 성안의 7세 이상의 남녀를 대승법으로 교화하였다 했다. 이는 〈승만경〉이 대승법을 설한 경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말이다. 대승법이란 반야공 사상에 입각하여 자비와 회향의 실천을 위주로 가르치는 법문을 말하는 것이다. 〈중론〉에는 이렇게 설해 놓은 대목이 있다.

"부처님은 사견(邪見)을 끊고 불법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성문법 가운데 12인연을 설하셨다. 또 이미 성문법 닦기를 끝내고 대승심을 일으켜 수행하며 깊은 가르침을 받고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위해서는 대승법으로 인연의 모습을 설하였으니 말하자면 불생불멸, 불일불이 등과 필경공, 무소유 등이다."

이러한 대승의 취지를 달리 중도(中道)라 한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유를 밝힐 때 부파불교나 소승에서 실종된 중도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중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사견이 된다. 변견(邊見)이나 양변(兩邊)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중도를 잃어버리고 사견이 된다 하였다. 이 중도를 나타내는 말에 '쌍차쌍조(雙遮雙照)' 라는 말이 있다. 양변을 모두 차단하고 막으며 부정하는 것을 쌍차(雙遮)라 하고 양변을 모두 비추고 드러내며 긍정하는 것을 쌍조(雙照)라 하였다. 양자를 함께 부정하거나 함께 긍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릇된 견해를 물리치고 정견을 구하는 실천의 수단으로 쓰인 말이다. 가령 유(有)와 무(無)를 가지고 말하면 이 둘을 동시에 부정하면 비유비무(非有非無)가 되는데 이것이 쌍차이다. 반면에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고 하면 이는 역유역무(亦有亦無)가 되어 쌍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를 실현한다 하였다.

우칭왕은 아유사국의 왕이었다. 〈승만경〉 경문에는 승만 부인이 코오살라국 바사닉(Prasenajit)왕의 공주로 아유사국으로 시집을 가 우칭왕이 왕비가 되었다고 설하고 있으나 용수(龍樹)의 〈지도론〉과 율장인 〈오분율〉에서는 바사니왕의 비였다는 이설(異說)도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생' 뜻 깨쳐야 괴로움서 벗어나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㊽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1. 인연 중 가장 소중한 부처님과의 인연

우리들의 삶은 항상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 만약 인연이 없었다면 너와 나의 인연도 없을 것이며, '우리' 라는 인연도 없을 것이다. 특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연은 중생들을 서로서로 연결시켜주며 중생 스스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옷깃만 스치는 인연을 가지려고 해도 과거 5백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인연을 가지려면 과거 1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하룻밤을 같은 집에서 묵을 수 있는 인연은 과거 3천겁의 인연을 지어야 하고 한동네에 태어나서 사는 인연은 과거 5천겁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 한 집에 태어나는 인연은 과거 7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과거 8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1겁(劫)' 의 시간이란 우주가 한 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후에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우리들은 이처럼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오랜 인연에 의해서 현재의 삶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둑과 인연을 맺으면 도둑이 되고 부자와 인연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 누구와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인연을 잘 선택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들의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부처님과의 인연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과의 인연은 중생들을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無緣衆生 救濟不能)"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이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 ·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을 잘 지어 나아가야 한다.

백천만겁의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과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百千萬劫難遭遇]고 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은 과거 생에 복이 많아서 오늘날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복된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탈 · 열반을 증득하는 그날까지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잘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극한 믿음과 불퇴전의 노력으로 부처님을 신앙하며, 부처님 말씀에 따라 바라밀을 실천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우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생이 무엇인지? 왜 중생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깨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생과 부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 · 열반을 증득하여 상락아정의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들이 평소에 '중생'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이 중생아!" 라고 하거나, "아이고! 이 미련한 중생아!"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이 '중생' 이란 말의 의미나 쓰임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중생이란 무엇일까? '중생' 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부터 중생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들이 왜 중생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㉟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1

'버림'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라훌라야, 어떠한 물질이든지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거친 것이건, 미세한 것이건, 열등한 것이건, 수승한 것이건, 먼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세존께서는 오직 물질만을, 세존께서는 오직 물질만을 언급하신 것입니까?"

"라훌라여, 느낌도 마찬가지이고, 지각도 마찬가지이고, 형성도 마찬가지이고,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사문의 수행입니까?"

동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머리는 석자〔三尺〕, 목은 두치〔二寸〕라네."

입을 열어 혀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자의 목을 베어 버리니, 거추장스러웠던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진다. 다시 무엇을 더 관찰하고 알아낸 것이 존재하겠는가. 여기에 다시 무엇을 얹는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일이니, 수행한다고 더 나아질 것이 없다. 바로 알아버리는 것조차 모자람인데 더듬더듬 알아낸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수행은 성과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밖의 대상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무엇을 알았더라도,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알아낸 것은 아무 소용없는 개뼈다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네가 너라고 하는 모든 것에 너는,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관찰만을 하라고 하셨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 무엇을 얻어야 한다' 라는 어떤 말씀도 없이, 오직 '네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단박에 잘라 다시 붙지 못하게 하는 도리를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붙여 버린다면 다음을 기약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량분별을 지어봤자 저울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기울게 되어 있으니, 올려도 기울지 않는 것을 가져와야 그와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수행은 얻으려는 그 한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 마음으로 무엇을 찾아 아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 라고 삼은 미혹 때문에 찾는 마음을 내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다. 그 찾는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혹에서 저절로 풀려나 함이 없는 온전함을 얻게 된다. 미혹하면 언제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어 붙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모든 것을 털어 넣어 법 삼으려 하겠지만, 어찌 그런 것으로 있지도 않은 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버린다는 것은 '하는 것' 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 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그' 라는 것이 어찌 버릴 수 있는 물건이겠는가. 그렇다고 만약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찌 버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버리라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였기에 말하는 것이지 버릴 것이 있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버리라는 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관찰하는 것이다.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관찰될 때, 물질에서 느낌에서 지각에서 형성에서 의식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발견이라는 것이 빈 껍데기뿐이니, 다시 얻었다는 마음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나의 것이 있으면 수행을 하였다 하겠지만,
나의 것이 아니니 수행하였다 할 것이 없네.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하였던 모든 일들이
허수아비가 바람 따라 움직였던 것이었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